

yeong yang

WEB CONTENTS

가장 
자연적인
영양

2017년 09월 22일 22시 40분

목차

목차	2
생애와 업적	3
여중군자 장계항(1598~1680)	3
연보	3
탁월한 안목의 문학 소녀	4
어질고 바른 어머니	4
업적	4



여중군자 장계항 (1598 ~ 1680)

선조 31년 경북 안동 금계리에서 태어나
 숙종 6년 83세를 일기로 경북 영양 석보에서 타계하였다.
 만년에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이 대학자이자
 국자적 지도자에게만 부여하는 산림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조판서를 지냈으므로 법전에 따라 정부인의
 품계가 내려졌다.



> 여중군자 장계항(1598~1680)

- 한국 최초의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저자
- 문화관광부 선정 1999년 11월 문화의 인물
- 조선중기 문학자, 서예가, 화가, 과학자, 사회복지실천가
- 한국화 "맹호도"와 자연과 세상을 노래한 시9편과 서간1편을 남김
- 당대에 이미 '여중군자'라 칭송받음
-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은 경당 장흥효의 무남독녀
- 시, 서, 화에 능통했으며 맹자, 정자의 어머니 같은 인물
- 소설가 이문열의 선대 할머니이자, 그의 소설 '선택'의 주인공

> 연보

- 1598년 11월 24일
안동 금계리(춘파)에서 아버지 경당 장흥효와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 외동딸로 태어나다.
- 1608년 (11세)
소학, 십구사략 등을 스스로 깨우치다.
- 1610년(13세)
학발시, 경신음, 성인음, 소소음 등을 짓다.(‘맹호도’도 이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
- 1615년(18세)
어머니가 장질부사로 몸져눅자 집안일을 맡다.
- 1616년(19세)
영해 인량리의 재령이씨 윤악 이함의 셋째 아들 석계 이시명과 혼인하다.
이시명은 광산김씨와 사별하고 1남1녀를 두었다.
- 1622년(25세)
친정 어머니 안동 권씨 부인 운명하시다. 친정에서 어머니 3년상을 치르다. 아버지를 재혼시켜드리다.
- 1631년(34세)
석계종택 영양군 석보면 원리동으로 분가하다. 도토리 나무를 심다.
시아버지의 발병으로 다시 인량리로 돌아와 보살피다.
- 1632년(35세)
시아버지 윤악선생 운명하시다.
- 1633년(36세)
친정아버지 경당선생 운명하시다.
- 1634년(37세)
이복 큰동생을 시택으로 데려와 가르치다.
- 1636년(39세)
병자호란 발발하다.
- 1638년(41세)
남편 이시명이 무고한 옥사와 재판을 받다. 무혐의로 풀려나다.
- 1640년(43세)
영해 석보면 원리동으로 완전히 이주하다. 모은 재산을 큰조카에게 물려주고 나오다. 도토리 나무 숲을 가꾸어 한 번에 150여명의 끼니를 삼을 만큼되다.
- 1644년(47세)
시아버지 진성이씨 운명하시다. 모시고 살다가 운명하시고 인량리에서 3년상 입다.
- 1652년(55세)

병자국치를 슬퍼하며 영양군 수비로 이사하여 은거를 시작하다. 식구 30여명과 함께 살다. 자식들에게 본격적으로 강의하는 남편을 따라 명상과 학문, 노동과 인생의 재발견을 위한 생활을 하다.

- 1664년(67세)
손자 신급(벽계 이은), 성급(밀암 이재)에게 학문을 권려하는 오언시를 써 주다.
- 1670년 (73세)
'회우시'를 쓰다.
- 1672년(75세)
한글 최초의 요리서, '음식디미방'을 저술하다. 가뭄이 극심하여 현종이 대책을 전국에 걸쳐 구하다. 자식들을 모두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 보내다. 부부만 안동 도솔원으로 옮겨 초근목피로 생활하며 자족하다.
- 1674년(77세)
안동부 대명동(풍산읍 수곡리)으로 이사하다. 남편 이시명 운명하시다(84세).
- 1680년(83세)
7월 7일 영해부 석보에서 넷째 아들 송일의 집에서 운명하시다. 안동 대명동까지 운구하여 장사지내다.
- 1689년 8월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이 이조판서 직함을 받으므로써 정부인 교지가 내려지다.

▶ 탁월한 안목의 문학 소녀

장계항 선생은 노랑해전을 대미로 7년간에 걸친 대전쟁, 임진왜란이 막 끝나가던 1598년 11월, 아버지 경당 장흥효(1564~1633)와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의 외동딸로 안동 검재(금계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학부 김성일의 문인으로 당대 학자로 인정받았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러한 집안 분위기 탓일까, 어린 소녀는 사람방을 기웃거리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걸논으로 배웠다. 아버지는 퇴계 학풍을 이어 받은 학자답게 '몸을 삼가고', '항상 공경하는 자세'를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1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소학>과 <십구사략>을 깨쳤고, 13세가 되어서는 <백발 늙은이>, <몸가짐을 조심하다>, <소소한 빗소리>와 같은 주옥같은 시들을 지었다. 글씨도 곧잘 써서 그녀가 쓴 초서체 '적벽부'는 당대 서예가 정윤목이 "기풍과 필체가 호기로워 우리나라 사람의 글씨와는 다르다"고 평할 정도였다.

▶ 어질고 바른 어머니

나이 19세 되던 1616년 영해 나랏골에 살던 재령 이씨 가문의 이시명과 결혼했다. 남편은 이미 광산 김씨와 결혼해서 1남 1녀를 둔 27세 청장년이였다. 남편과는 여덟 살 차이, 계다가 계실로 들어간 자리였으니 새색시로서는 만만찮은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색시는 전부인 소생 6살 배기 상일의 자식 공부를 위해 어린 상일을 남쪽으로 5리 남짓 떨어진 남경훈 선생 집으로 매일 같이 업고 다니는 열의를 보였다. 새 며느리를 지켜보던 시아버지 아함은 동리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며느리 얘기를 했다. "저 어미 잃은 아이는 어미를 잃은 것이 아니고 죽은 어미가 살아 온 것이다" 이후 그녀는 6남 2녀를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웠다. 태기가 있는 동안 그녀는 과일, 채소와 같은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모양과 빛깔이 온전하지 않거나 바르지 않은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 하루는 동네잔치로 동리 이웃들이 모두 모여 기생을 부르고 음악을 베풀고, 처음무를 펼치는 일이 있었다. 마침 임신 중이던 그녀는 종일토록 머리를 숙이고 눈을 뜨지 않았다. 그 소식을 접한 친정아버지는 "너는 내게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구나"며 탄복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그런 노력 덕택이었을까. 그녀는 전부인과 자신의 소생 7남 3녀를 모두 한결같이 훌륭한 인물로 키웠다. 그중에서도 둘째 휘일, 셋째 현일, 넷째 송일은 경상도를 대표하는 학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그의 손자 이은, 이재, 외손자 이상경 또한 문명이 높았다.

'음식디미방'은 나이 일흔이 넘은 장계항 선생이 자신의 지식을 집대성해 후손들을 위해 쓴 조리서이다. 평생 동안 배운 삶의 지혜들을 조리서 곳곳에 고스란히 담았다. 한문 실력이 뛰어난데도 후세들이 가까이 두고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꼼꼼하고 바른 한글로 적었다. 소설가 이문열의 선대 할머니이자, 그의 소설 '선덕'의 주인공이기도 한 장계항 선생은 인자한 어머니, 현명한 아내, 효심 가득한 딸, 자애로운 어른 등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1680년(숙종6년) 83세를 일기로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내 석계고택에서 향년을 마칠 때까지 자녀 훈도에 힘을 쏟으니 재령 이씨 가문이 더욱 크게 일어나 훌륭한 학자와 명망있는 동량들이 대대로 배출 되었다. 말년에는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이 대학자이자 국가적 지도자에게만 부여하는 신림(凶凶)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조판서를 지냈으므로 법전에 따라 정부인의 품계를 받았으며, 이때부터 '정부인 장씨'라 불리게 되었다. 셋째 아들 현일이 한글로 번역한 「정부인 장씨 실기(凶凶)」에는 선생의 여러 가지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암한 뒤에는 '열녀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엄격한 태도를 하였으며, 자애로움과 엄격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 흥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민생이 참혹할 때는 술을 밖에 걸고 죽과 밥을 지어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였으며, 의지할 곳 없는 늙은이를 돌보고, 고아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기르는 등 인덕과 명망이 자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와 시가 부모를 모시고 봉양함이 극진하여 몸소 효를 실천하니 그 자식들 또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하여 1999년 11월 문화관광부는 자녀교육에 귀감을 보인 '위대한 어머니상'으로 여중군자 장계항 선생을 선정하였으며, 영양군에서는 두들마을 앞에서 선생의 덕을 기리는 비와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였다. 선생의 아버지 장흥효는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 벼슬도 마다한 채, 집 가까이 광풍경(凶凶)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평생을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낸 인물이다. 이러한 장흥효가 서른다섯 살 되던 해에 얻은 아이가 장계항 선생이었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갈암 이현일의 장계항선생의 팔십 평생기를 기록해 놓은 책, 「정부인 장씨 실기(凶凶)」에 의하면 그는 당시 성인군자의 입문 서인 <소학>은 물론, 유가의 기본적 경전인 사서오경, 세상 돌아가는 실계를 알기 위한 중국역사서 <십구사략>에서 소강결의 난해한 전문도수 학문 '원회운세지수'까지 제대로 이해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초서, 그림, 자수 등의 작품을 보면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장계항 선생의 높은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 업적

- 10남매를 출중하게 성장시키고 실의에 빠진 부군 석계 이시명을 일으켜 세운 대표적인 현모양처
- 빼어난 시 9수를 남긴 시인
- 사나운 호랑이를 섬세하게 표현한 '맹호도'와 산수화를 남긴 화가
- 당대의 초서 대가 정윤목의 절찬을 받은 서예가
- 재주보다 선행을 강조하여 이조판서로 국록을 받은 3남 이현일 등 일곱 아들들 7릉으로 불리우게 양육한 교육자
- 퇴계학파의 적통인 아버지 경당 장흥효의 영향과 시아버지 이항 및 부군 이시명의 학연속에 수기안인(凶凶)의 길을 모색한 사상가
- 조선 중기 4대 전화(凶凶), 임진왜란, 정묘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속에서 민족들을 구출한 사회사업가
- 아시아에서 여성이 저술한 가장 오래된 조리서이자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요리서인 '음식디미방'(1672)을 쓴 과학자

Yeong Yang
WEB CONTENTS

